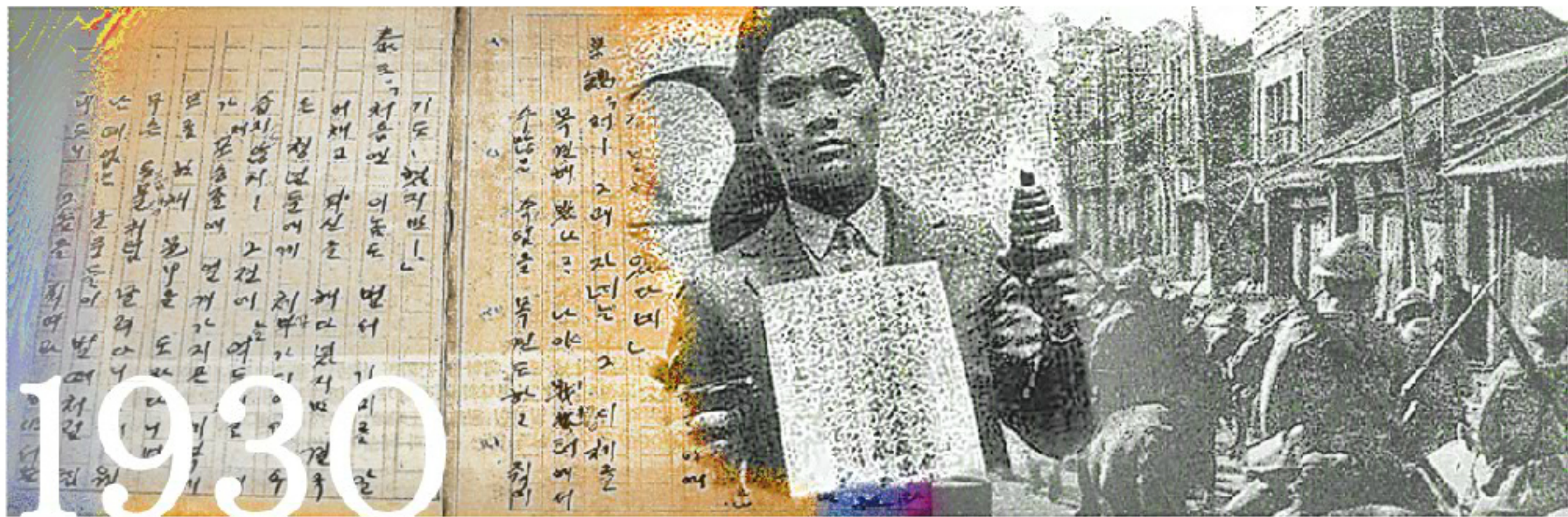




1930년대, 이 시기 문학은 근대문학의 발전이 두드러진다.

민족말살에 항거한 투쟁의 시대로 이 당시 문인들은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통해 근대문학의 성숙을 이뤄낸다.

이 시기에 충북 대표문인으로 향수의 정지용과 고향상실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 오장환 시인이 있다.

근대적 감각과 서정성의 시적 형상화, 한국 근대 대표 시인 정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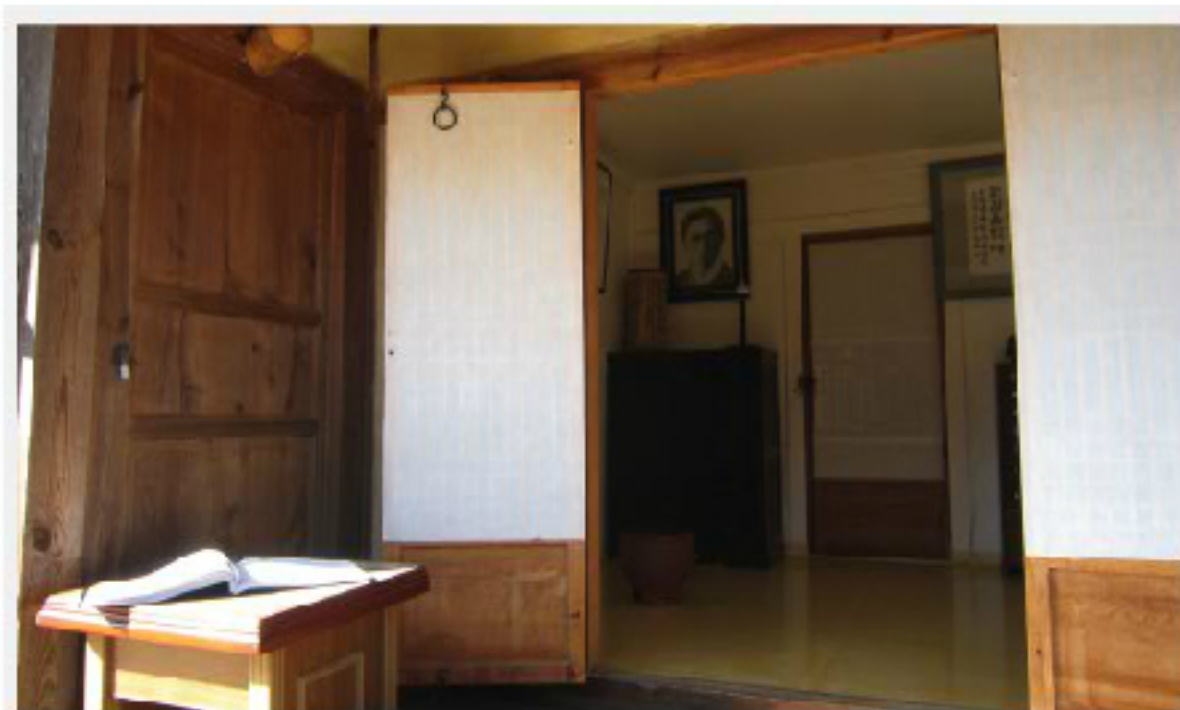
정지용은 1902년 음력 5월 15일 충북 옥천의 '실개천 지줄대는' 농가 마을에서 태어났다. 순수의 시인으로 알려진 정지용은 휘문고보 재학 시절 『서광』지 창간호에 소설 「삼인(三人)」을 발표하였으며, '문우회' 학예부장, 『휘문』 창간호의 편집위원이 되는 등 문재(文才)를 발휘하였다.

일본 경도에 있는 동지사대학에 입학할 당시에는 대표작의 하나인 「향수」를 썼고, 『시문학』 동인 시대와 더불어 가장 왕성한 시작(詩作) 활동을 하였다. 시문학 동인 시대 이후 『가톨릭 청년』지의 편집을 도우면서, ‘구인회’를 결성하여 반카프적 입장에서 순수 문학을 옹호하는 취지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경향잡지』, 『문장』, 『경향신문』 등의 편집에 관여하였다. 해방이 되서는 이화여대와 서울대에 출강하여 시론, 수필, 평문을 발표하였으며, 휘트먼의 시를 번역하여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당시 녹번동 초당에서 설정식(薛貞植) 등과 함께 정치보위부에 나가 자수 형식을 밟다가 잡혀 납북된 것이 ‘자진 월북’으로 오인되어, 정지용의 작품은 오랫동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출간조차 되지 못했다.

1982년 6월 유족과 원로 문인, 학계가 중심이 되어 진정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며, 당시는 시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해금되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조치 이후로 해금되어 그의 작품들이 독자들의 손에 가게 되었다.

01 출생과 가족사 : 1902 -1917 / 1-16세

정지용은 1902년 음력 5월 15일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면 하계리 40번지에서 아버지 연일 정씨 정태국과 어머니 하동 정씨 정미하 사이에 독자로 태어났다. 부친 정태국은 젊어서 중국 등지를 전전하면서 익힌 한의학으로 약국을 경영하여 여유 있는 생활을 하였으나, 어느 해 여름 홍수의 피해로 집과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형제로는 부친과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동생 화용(華溶)(男)과 계용(桂溶)(女)이 있었으나 화용은 요절했고, 계용만이 논산에서 살다가 사망했다고 한다. 자녀로는 구관, 구익, 구인, 구원, 구상 등을 두었다.



정지용 생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면 하계리 40번지

02 문학적 요람기 : 1918 -1923 / 18-22세

ㄱ. 휘문고보 시절

정지용이 사립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은 1918년으로, 그의 나이 17세가 되던 해였다. 학교 시절 성적은 극히 우수한 편으로, 학업과 시에 대한 재능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다. 정지용이 2학년 때 민족적 대거사인 3.1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그에게도 이른바 휘문 사태라는 큰 사건이 일어난다. 그것은 대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학내 문제로서, 도서관, 기숙사, 강당 등 학생 복지 시설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며 동맹 휴학에 들어간 것이다. 여기에 정지용은 주동이 되었고, 결국 무기 정학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학생들의 요구가 관철되었고, 처벌되었던 학생들도 바로 풀려나 복교되었다.



휘문고보 시절

휘문고보 입학과 3.1운동 당시 일어난 휘문 사태

02 문학적 요람기 : 1918 -1923 / 18-22세

ㄴ. 교내 잡지 『요람』

취문보고 시절 정지용은 홍사용, 박종화, 김영랑, 이태준 등과 선후배 사이로 교분을 나누었다. 이들은 졸업 후 당시 한국 문단의 한 축을 형성한다. 그리고 정지용은 1학년으로서 『요람』 동인을 결성하여 문학적인 정열을 불태웠다. 1919년 12월에 정지용은 첫 번째 소설이자 유일한 소설인 『삼인』을 『서광(曙光)』지 창간호에 발표한다. 이 소설을 통해 정지용의 문학적 재능뿐만이 아니라 문학에 기울인 정열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옥천의 고향 마을이며, 등장인물 중의 하나인 누이동생은 실제로 정지용의 이복누이로 추정된다. 이처럼 정지용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정감을 초기 작품의 주된 소재로 삼고 있다.



교내 잡지 『요람』
정지용의 문학적 요람기 『요람』

03 문학적 성장과 시적 독자성 확립 : 1923 -1935 / 22-34세

정지용의 문학적 성장기는 경도의 도시샤 대학에 입학한 1923년부터 『정지용 시집』을 간행한 1935년까지이다. 1923년 5월 정지용은 일본 유학생이 되어 도시샤 대학 예과에 입학했다. 14세 가난한 소년이 경성에서의 유학을 마치고 21세에 꿈에 그리던 일본 유학이 실현된 것이다. 유학 생활 3년 후에 공적인 문단 활동이 시작되면서 정지용은 일본 경도 유학생들의 회지인 『학조』 창간호에 「카페 프린스」를 비롯하여 동시 「감나무」, 「띠」 등을 발표하였다.

정지용이 28세 되던 해에 도시샤 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에 휘문고보의 영어 교사로 부임하여 이후 16년간 재직하였다. 그리고 1930년도에 정지용은 박용철 · 김영랑 · 이하운 등과 함께 『시문학』 동인으로 활동하며 『시문학』 창간호에는 교토 시절 쓴 작품을 발표했다.

이듬 해에 『시문학』 후속지격인 『문예월간』에 「고향」, 「난초」 등 10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이 후에 1933년 8월에 정지용은 반(反)카프적 입장에서 순수 문학을 옹호하는 취지로 결성한 '구인회(九人會)'에 가담했다. 초기 창립 회원은 김기림 · 이효석 · 이종명 · 김유영 · 유치진 · 조용만 · 이태준 · 정지용 · 이무영 등 9명이다.

카프 -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계급주의를 강조하는 정치적 성격



정지용의 문학적 성장

정지용 시집의 간행과 시문학 활동

04 시적위상과 시 세계의 심화 : 1935 -1945 / 34-44세

정지용의 시적 위상이 확립된 시기는 첫 시집을 발간한 1935년부터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한 1945년까지이다. 자식을 잃은 가족사적인 역경과 종교적 시련을 딛고 정지용은 1935년 시문학사에서 첫 시집 『정지용 시집』을 간행한다. 출간 이후 정지용은 문단적으로 화려한 명성을 얻었지만, 그 개인으로서는 아들의 죽음과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다. 1937년 국내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으며, 6월에는 수양동우회 구속 사건, 7월에는 노구교 사건으로 중일전쟁이 발발하였으며, 11월에는 남경학살 사건이 발발했다.



시적 위상이 확립된 시기

1935년 시문학사에서 정지용 시집의 간행

05 분단 시대와 인간적 시련 : 1945 -1950 / 44-49세

정지용이 감당하기 힘든 인간적인 시련은 조국의 광복과 함께 찾아왔다. 정지용의 생애에서 마지막 단계가 될 분단 시대와 인간적 시련은 1945년 8월의 광복으로부터 1950년 6월 남북까지이다. 우선 1945년도에 8·15광복으로 민족 해방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으나 좌우의 대립으로 남과 북은 분단의 길로 나아가기에 이르렀다. 뒤이어 일어난 6·25 한국전쟁은 식민지 시대보다 더 혹독한 인간적 시련의 소용돌이 속으로 정지용을 휘몰아갔다. 이 후 정지용은 휘문중학교 교사직을 사임하고 10월에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옮겨 문과 과장이 되었다. 사회적 · 시대적 격변과 함께 정지용에게도 많은 변동이 있었다. 해방이 되자 좌우의 대립은 극에 달했으나 그는 이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2년 후인 1947년도에 정지용은 『경향신문』 주간을 사임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복직하였으나, 해를 넘기자마자 사임하고 녹번동 초당에서 서예로 자신의 마음을 달래면서 소일하게 된다.

시세에 따르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선비들의 진퇴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선택이었다. 이후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설정식 등과 함께 정치보위부에 나가 자수형식을 밟다가 잡혀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인 시련

휘문중학교 교사직을 사임 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옮김

06 문학적 복권과 새로운 평가 : 1988 - 2006

정지용이 한국 현대시의 아버지라는 말은 새삼 흥미할 만하다. 그 이유는 그가 성정의 미학에 근거하여 한국 현대시를 주체적으로 한글탈태 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탁월한 시적 안목으로 독자들에게 훌륭한 시인들을 알리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이상의 시를 『카톨릭 신문』에 소개하고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을 『문장』지를 통해 추천하였으며, 해방 후 운동주의 저항시를 『경향신문』에 소개하고 유고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간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서구적 근대 감각과 조지훈, 박두진, 박목월의 전통적 서정의 감각, 그리고 운동주의 저항시적 감각 등의 다양한 시적 감각들이 우리 시문학사에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공헌하였다는 점에서 정지용은 가히 한국 현대시사의 결정적인 이정표가 된다.



작가연보

- 1902** 5월 15일(음력)에 옥천군 내면(內面) 상계전(上桂田) 7통(統) 4호(戶)(현 충북 옥천군 옥천읍 하계리 40번지)에서 정태국(鄭泰國)과 정미하(鄭美河)의 1남 1녀 중 첫째로 출생. 아래로 첩실 소생의 1남 1녀가 있어 모두 4남매였음.
- 1910** 4월 6일에 생가 근처에 위치한 옥천공립보통학교(현 죽향초등학교)에 입학.
- 1913**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에 사는 송명헌(宋明憲)의 딸 송재숙(宋在淑)과 결혼.
- 1912** 3월 25일에 옥천공립보통학교(4년제)를 제4회로 졸업.
- 1918** 4월 2일에 휘문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고 거주지는 경성 향신동 143번지 유필영 씨방이었음.
박팔양, 김화산 등 8명이 모여 문학 활동을 하면서 『요람』이라는 동인지를 펴냄.
- 1919** 학내 사태의 주동이 되어 전경석은 제적당하고 정지용은 이선근과 함께 무기정학을 받았지만, 학우들과 교직원의 중개로 곧 복학.
12월에 『서광(曙光)』 창간호에 소설 「3인」을 발표.
- 1922** 3월에 휘문고등보통학교(4년제)를 졸업. 휘문고등보통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이 모여 만든 문우회의 학예부장이 되어 『휘문』 창간호의 편집위원이 되었고 마포 하류의 현석리(현 마포구 현석동)에서 시 「풍랑몽(風浪夢)」을 창작.
- 1923** 3월에 휘문고등보통학교 5년제를 졸업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 않음. 지용이 편집에 참여한 『휘문』 창간호가 발행. 4월에 시 「향수」를 창작하였고, 5월 3일에 동기인 박제찬과 함께 일본 경도(京都)의 동지사(同志社)대학에 입학.
- 1925** 일본어로 된 시 「新羅の柰榴」을 『街』 3월호에, 「まひる」, 「草の上」을 7월호에 발표

작가연보

- 1926** 6월에 「카페·프린스」 등을 『학조(學潮)』 창간호에 발표.
- 1928** 2월(음력)에 옥천군 내면 상계전 7통 4호에서 장남 구관(求寬)이 출생.
- 1929** 6월 30일에 동지사대학 영문과를 졸업하였고, 9월에 모교인 휘문고등보통학교 영어과 교사로 부임하였고, 이때의 동료로는 장발, 이현구, 이병기, 김도태 등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제자로는 시인 오장환이 있었음. 학생들이 붙인 별명은 '신경통'과 '정종'이었다. 이해에 고향 옥천을 떠나 서울 종로구 효자동으로 가족을 이끌고 이사함.
- 1930** 3월에 박용철, 김영랑, 이하운 등과 『시문학』 동인 활동에 참가
- 1931** 12월에 서울 종로구 낙원동 22번지에서 차남 구익(求翼)이 출생.
- 1933** 6월에 창간된 『가톨릭청년』 지의 편집을 맡음. 7월에는 3남 구인(求寅)이 태어났으며, 8월에 이종명, 김유영, 이태준, 이무영, 김기림 등과 구인회에 참여.
- 1934** 서울 종로구 재동 45-4번지로 이사하였고, 12월에 장녀 구원(求蘭)이 출생.
- 1935** 10월에 첫 시집 『정지용 시집』을 시문학사에서 간행.
- 1936** 3월에 구인회 동인지 『시와 소설』이 창간.
- 1937**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64번지로 이사하였고 이 무렵 여류 문인들이 부른 별명은 '닷또상'(소형 자동차)이었음.

작가연보

- 1938** 블레이크와 휘트먼의 시를 번역하여 최대서가 편집한 『해외서정시집』에 실었으며, 가톨릭 재단에서 펴낸 『경향잡지』의 편집에 참여. 김영랑이 살고 있는 강진을 방문하고 「남유(南遊)」를 발표.
- 1939** 5월 20일에 북아현동 자택에서 부친이 사망하여 옥천군 옥천읍 화계리(꽃계리, 속칭 피꼬리) 선영에 안장. 8월에 창간된 「문장」지에 이태준과 함께 참여하여 청록파, 이한직, 박남수 등의 신인들을 추천.
- 1940** 길진섭 화백과 함께 선천, 의주, 평양, 만주의 오룡배(五龍背) 등지를 여행하면서 『화문행각(畵文行脚)』을 집필하여 『동아일보』(1.1~2.15)에 연재.
- 1941** 9월에 제2시집 『백록담』을 문장사에 발행.
- 1944** 공습에 대비한 소개령(疎開令)에 따라 경기도 부천군 소사읍 소사리로 이사.
- 1945** 해방과 더불어 휘문중학교 교사직을 그만두고 10월에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 과장으로 부임하여 한국어, 영시, 라틴어 등을 가르침.
- 1946** 2월 8~9일에 조선문화가동맹에서 개최한 전국문학자대회에서 아동분과 위원장 및 중앙위원으로 추대되었으나 참석하지 않음. 5월에 「정지용 시집」재판을 건설출판사에서 간행하였으며, 같은 달에 모친이 별세. 6월에 「지용시선」을 을유문화사에서 발행. 8월에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여화여자대학으로 개칭되어 교수로 재직. 10월에 교수직을 떠나 가톨릭 재단이 경영하는 경향신문사의 주간으로 취임하였으며, 같은 달에 『백록담』재판을 백양당에서 간행하였고, 서울 성북구 돈암동 산11번지로 이사.

작가연보

- 1947** 8월에 경향신문사를 그만두고 이화여자대학 교수로 돌아왔으며,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강사로 출강하여 『시경』을 강의.
- 1948** 2월에 이화여자대학 교수직을 사임하고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녹번리(현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초당에서 서예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 당시 박문출판사에서 산문집 『문학독본』을 발행.
- 1949** 3월에 동지사에서 『산문(附譯時)』를 펴냈고, 이후 문교부 지시로 교과서에 수록된 그의 시가 삭제되었고, 11월 4일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였고 문화실장으로 임명.
- 1950** 3월에 동명출판사에서 『백록담』제3판을 발행하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후 7월에 녹번리 초당을 찾아온 설정식 등과 함께 집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않았음. 몇 사람의 증언으로 미루어 보면, 조선문학가동맹의 지시를 따라 정치보위부에 자수 형식으로 나갔다가 박영희, 김기림 등과 서대문 형무소에 잠시 수감된 뒤 납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중에 폭사했다는 주장과 유엔군 포로로 잡혔다가 북한행을 택했다는 주장도 있음.